

예술인 복지증진 강화 통한 창작하기 좋은 생태계 조성

전북문화관광재단을 주요 업무계획

문화·관광 균형적 운영에 역점
작년 운영 국제문화교류지원 확대
순수작가 아트상품 개발 지원 신설
시군 문화매개인력 재교육 사업
생애주기별 문화 경험 기회 확대

예술인 복지증진 강화를 통한 창작하기 좋은 예술생태계 조성을 추진한다. 도민 모두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문화중산층을 육성하고 문화와 관광이 융합된 공연예술 확대를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한다.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병천)은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 주요 업무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올해 운영 2기(2018~2019년)를 맞이하는 재단은 문화와 관광을 균형적으로 운영하는데 사업의 역점을 둔다고 밝혔다. '사람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 '세대가 조화로운 교육' '문화가 살아있는 관광' '가치가 실현되는 지역' 등을 골자로 한 사업을 추진한다.

재단은 이를 위해 먼저 도내 예술인의 창작 활동 활성화와 예술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도민 모두가 문화를 즐기며 함께 나누는 문화 복지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은 작년에 시범적으로 운영한 '국제문화교류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순수예술작가 아트상품 개발지원' 사업을 신설하여 도내 예술인의 세계무대 진출과 창작여건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전라북도 예술인복지증진센터'를 비롯해 '예술인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 창작활동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문의 경우 도민 모두가 문화를 즐기고 문화적 소비를 자유롭게 실천하기 위해 생애주기별로 문화를 경험하는 기회를 확대하고, 이에 맞는 문화예술교육을 개발하여 문화가 삶의 일상이 되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신설된 사업은 '시군 문화매개인력 재교육 사업'으로 문화시설 종사자가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분야별·지역별로 수요맞춤형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관광부문에서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북상설공연의 변신을 꾀한다. 문화와 관광이 융합되는 전북상설공연은 새로운 주제를 설정하여 다채롭고 화려한 공연으로 재탄생시킬 계획이다.



전북문화관광재단이 10일 예술인 복지증진 강화를 통한 창작하기 좋은 예술생태계 조성을 골자로 하는 2018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설명회.

전라도방문의해 아트·버스킹 신설

관광콘텐츠 크리에이터 발굴 추진

전북지역 곳곳 브랜드화 나서기로

전라도 천년을 기념하는 '전라도방문의해 아트·버스킹 운영' 사업을 신설하여 도내 전역에서 전북의 문화예술이 지속적으로 펼쳐지도록 할 방침이다.

계획에는 전북도의 위상과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지역관광브랜드를 개발하고 체계적인 마케팅을 구축하여 도내 주요공간을 관광명소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재단은 유휴공간을 문화적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문화터미널을 비롯한 문화도시 구축을 위한 공간 재창조 사업을 통해 전북의 우수성을 알리는데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전라도 천년을 기념하는 '전북관광콘텐츠 크리에이터 발굴'과 '전라도천년 청소년 문화대탐험' 사업 추진으로 전북의 문화가치를 재발견, 전북의 곳곳을 브랜드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병천 대표이사는 "운영 2기를 맞이하는 올해를 새로운 도약의 시기로 보고 재단의 기량을 확대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대 경영철학인 '소통경영, 창조경영, 선도경영'을 모토로, 지역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가교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해은 기자

한식문화

이야기 함께 공유해보요

문체부, 사진·영상 공모전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9일까지 '한식문화 사진 및 영상 공모전'을 실시한다.

이번 공모전은 한식과 한식문화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공유함으로써 많은 이들이 한식문화의 일상성을 향유하고 즐거움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

공모대상은 한식과 한식문화에 얽힌 재미있거나 인상적인 이야기를 담은 사진 또는 영상이며, 한식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국내외 상관없이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수상작은 오는 2월부터 3월까지 청와대 사랑채에 전시될 예정이며, 최우수상(문체부 장관상) 수상자에게는 2백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응모방법은 공모전 누리집(www.hansikart2017.co.kr)에서 내려 받은 양식을 작성한 후 사진 또는 영상과 함께 전자우편(hansikart2017@gmail.com)으로 제출하면 된다. /정해은 기자



국립민속국악원, '2018 토요일국악초대석' 출연 개인·단체 18~26일까지 신청접수

국립민속국악원(직무대리 전용운)은 상설공연인 '2018 토요일국악초대석'에 출연할 개인 및 단체를 공모한다. 모집부문은 유아대상 국악공연(이야기보따리), 전통예술 연주 및 춤(풍류마루), 국악과 타 장르간의 혼합무대(국악타파), 판소리 다섯 바탕의 무대(판소리 마당) 등 4개 분야다.

1차 서류 심사와 2차 심층평가를 통해 총 25팀을 선정할 예정이다. 결과는 2월중에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한다. 선정된 개인 및 단체에게는 소정의 출연료가 지급된다.

접수기간은 오는 18일부터 26일까지며, 신청 방법은 국립민속국악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와 필요자료를 작성하여 이메일(sueim01@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2018 토요일국악초대석은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남원 국립민속국악원 예음헌에서 매주 토요일 3시에 공연 될 예정이다.

국악원 관계자는 "이번 공모를 통해 역량 있는 예술인들에게 공연 기회가 주어지고, 지역민들에게는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국악공연을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오늘 개봉작 공개

미셀 공드리 감독 '수면의 과학'

짝사랑하는 여인의 사랑 얻기 위한

고군분투하는 남자 이야기 다뤄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전주영화제작소·4층)은 미셀 공드리 감독이 전하는 또 다른 꿈 속 로맨스 '수면의 과학'을 11일 개봉·상영한다.

'수면의 과학'은 21세기 최고의 영화 중 하나로 사랑받았던 '이터널 선사인'에 이은 미셀 공드리 감독의 또 다른 꿈 이야기다.

작품은 늘 꿈을 살고 있는 '스테판'이 짝사랑하는 '스테파니'의 사랑을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를 그린다.

영화는 감독이 직접 각본까지 맡아 연출한 작품으로, 개봉 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꾸준히 사랑을 받으면서 올해 1월 재개봉되기에 이르렀다.

멕시코를 대표하는 배우 가엘 가르시아 베



르날과 수많은 거장 감독들과 작업해온 베테랑 여배우 샤를로트 갱스부르가 함께 연기한 작품으로서도 화제를 모았다.

미국 대중들에게 명성이 자자했던 영화 평론가 로저 에버트는 개봉당시 '독창적인 미니어처 애니메이션으로 폭발하는 창의성'이라는 평으로 찬사를 보내기도 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홈페이지(http://theque.jif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해은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자동차 이젠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대표 이영근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